

## 오피니언

## 월/요/광/장

이 건 철



일찍이 아놀드 토인비 등 유수 미래학자들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동북아가 정치·군사·경제 부문에서 세계 양강인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로 주목을 받고 있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다루는 '6자회담' 재개와 경제협력 기구 구성은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에 대표적 사례이다. 오는 12월 대선에서 이처럼 불안한 남북관계와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대통령이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6자회담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 한미·중국·러시아·일본의 6개국이 참가하여 2003년 8월에 개최된 '6자회담'이다. 4년여 동안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유일한 국제기구로 기능하기도 했지만, 출발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 각각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

1994년 미국은 북한과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한은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게 체제 안전보장과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조건으로 핵 문제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당시로서는 과격적인 합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외전략으로 평가된다.

##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

중국은 세계 속에 명실상부한 '대국'으로서의 면모와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 6자회담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국이 6자회담을 자신이 주도한 국제적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기제로 주장하는 것을 이를 입증한다. 또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6자회담 전 중국 주도로 중·미·북의 3자회의(2003년 4월, 북경)가 개최되었으며, 이후 중국이 러시아, 일본, 한국의 참여를 권유하여 2003년 8월 1차 회담이 개최되었고, 2007년까지 6차례의 회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미국이나 중국 모두 우리나라를 배제한 채, 북한과 직접 상대

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를 북한 문제에 미국이나 중국에 주도권을 빼기고, 남·북 간 대화나 협의는 전혀 갖지 못했다는 점이며,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와 동시에 동북아에는 한·중 FTA 추진 움직임을 시작으로 미국을 배제한 한·중·일 경제협력기구 구축과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인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한·미 FTA가 발효되고, TPP에 일본이 가세하

이다.

동시에 주변 관련국들도 작년 8월에 총리가 취임한 일본을 제외하고는 5개국 모두 금년에 대통령이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이라는 점도 예상치 않는다. 북한은 지난 4월에 김정은이 등극하여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 러시아는 지난 5월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리고 중국은 오는 10월, 미국은 11월, 우리나라 12월에 새로운 국정 책임자가 탄생하는 것 또한 동북아 정세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듯 싶다.

오는 12월 대선에 참여할 주자들도 6자 회담과 경제기구 구성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정세와 국정 책임자가 바뀌는 여건 속에서 어떤 대외정책을 펼쳐나갈지 밝혀야 하고, 국민들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특수상황을 감안하면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을 잘 파악하고, 양국 지도자들과 소통이 원활한 대통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북한이 불안한 상황에 있다는 측면에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대통령의 중요한 자격요건이라 믿는다.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정치·군사·경제 부문에서 국가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중대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lt;전남발전연구원 원장&gt;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법조칼럼



권나원

## 유리한 것만 기억하는 '불편한 진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던 진실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지상파 방송에서 유행하는 개그 프로그램 '불편한 진실'의 오프닝 멘트다. 신문이나 뉴스의 기사 제목으로도 자주 언급되는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코너는 일상에서 무심코 접하게 되는 습관적인 대화나 행동, 현상들에서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내면심리의 비의도적인 표출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여 줘 웃음을 준다.

필자는 검사로 재직하며 짚게는 수십 편 이지에서 많게는 수천 페이지에 이르는 사건기록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야 하는데, 과거에 발생한 하나의 진실과는 반대되는 사

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접할 때마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떠올려 보게 된다. 필자는 배당받는 형사 법률분쟁을 해결(엄밀히 말하면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발생한 하나님의 사건을 범죄의 구성요건에 들어맞는 형태로 재구성해내야 한다. 그 요건에 들어맞는 구성에 성공하면 기소를 하게 되고 흥미로운 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저분을 하게 된다.

사건 관계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불리한 행동에 대하여는 진술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마치 부부싸움을 할 때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였거나 시간이 흘러 기억이 나지 않는 다거나 정신없이 혼란한 상태에서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흔히 한다. 그러나 자신의 유리한 경험에 대하여는 비교적 기억이 또렷하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호소하는 사건 관계인을 만나게 되면, 필자는 가끔 사건 관계인에게 "그것은 진실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은 것이 아닌가요?" 질문을 하면서 그들의 표정과 행동을 관찰한다. 본인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억에서 삭제해 버린 불편한 진실이 표출되는 현상은 없는가를 살핀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왜곡, 조작된 기억과

때린 사실은 기억해 내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심금을 헤아려 보면 고의·목적·이유와 같이 범죄행위인지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보일 때가 있고, 사건의 해결점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 그 단계에 이르면 어떤 결정을 내려 사건이 마무리된다.

지난해 안양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었다. 2000페이지가 조금 넘는 사기 고소사건인데 피의자와 고소인 모두 의도된 진술 왜곡이 너무 심해 부분적인 객관적 사실도 확정해내기 어려워 소위 장기간 방치돼 있던 사건이었다. 사건 관계인들의 불편한 진실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나서 객관적 행위만을 토대로 '이야기'를 구성해 들려 주었다.

양 당사자들이 나누는 사건인데도, 소설 같은 이야기에 피의자와 고소인 모두 생각보다 큰 반발은 없었다. 당사자들은 "그런 얘기도 가능하겠네요"라고 말했다.

오늘도 필자는 어느새 사무실 캐비닛을 열어 서로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사건기록을 들여다본다. "하나의 진실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모두 다르고 누군가에게는 다른 진실일 수도 있을 겁니다"라며 이해를 구해 보고자.

&lt;광주지방검찰청 형사2부 검사&gt;

여기에도 따뜻해지는 매년 4월 이후 울산과 포항 등 동해 남부바다에서는 환상의 고래쇼가 펼쳐진다. 멸치와 청어, 오징어를 쫓아 고래들이 때 지어 몰려든다. 3년 전부터는 고래잡사선도 운항 중이다. 미끈한 봄배를 뿐내며 유령하거나 공기와 물을 분수처럼 뿜어대는 수십~수백마리 고래떼의 해상파티에 관광객들은 환호성을 연발한다.

상업용 포경 금지 20여 년만에 고래떼가 돌아 오고 있는 것이다. 국

제포경위원회(IWC)는 남획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의 포경행 위를 금지했다. 우리나라

로 고래잡이를 전면 금지하고 어망과 통발 등에 걸려든 것만 유통시켰다.

고래는 우리 민족의 삶과 인연이 깊었다. 신석기 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는 고래 그림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영국 BBC는 이를 근거로 인류 최초로 고래잡이를 한 곳이 한반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호

남 해안지방에는 풍랑에 조난당한 어부

는 여전히 멸종위기종으로 보호가 필요 하다며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는 멸종 위험에 처한 흰고래 벨루가 남남매가 인기를 이어 한창이다. 멀리 러시아에서 찾아와 인간과 동물간 공존의 의미를 전파하고 있는 그들의 분투가 헛되지 않기를.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 기고



장정기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현재와 미래

기관을 수용하여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개발되고 있는 미래형 도시로 총사업비 1조4000억원, 개발 규모 732만7000㎡(222만평), 계획인구 5만인(2만세대)으로 전남개발공사, LH공사, 광주도시공사 3개 공기업이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신도시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에 걸맞게 전남개발공사 관계자 모두는 전남미래가치 디자이너로서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경실한 시공을 위해 품질관리에 철저함을 기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혁신도시는 미래지향적,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작년 4월 우정사업정보센터를 비롯한 한국전력공사 등 이전공공기관 청사 착공으로 하루가 다르게 기틀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은 사업관계자 한 사람으로서 뿐

듯함과 미래 전라남도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될 도시 모습에 가슴이 설렌다.

이처럼 활발한 사업진행에 밭았추어 전남 개발공사 구간의 2012년 3월 단독주택 지역 분양이 45:1이라는 유례없는 성공적인 분양률을 기록했으며, 5월~6월에 실시한 근린생활시설설치 및 상업용지의 분양 또한 성공리에 끝난 것은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에 있어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주변의 추가 개발을 검토하는 것도 낙후된 전라남도의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좋은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혁신도시는 단순히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남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주거 기능 외에 기업, 학교, 연구소 등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은 사업관계자 한 사람으로서 뿐

인도에서 잘나가는 택배기업으로 성장했다.

미리를 쿠리어즈는 무엇이 특별할까. 바로 직원이다. 관리자 4명을 제외한 64명의 직원이 모두 청각장애인이다. 그중에서도 직원 중 20명은 여성이다. 영국 육스퍼드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이 회사 사장은 인도로 돌아온 뒤 우연히 청각장애 소년과 만나 글을 쓰며 대화한 것이 기회가 되어 청각장애인들을 채용해 택배기업을 일구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기업은

인도에서 잘나가는 택배기업으로 성장했다.

더 놀라운 일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채용하기로 하고 그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찾았다는 사실이다.

장애인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한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해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임광복·광주시 남구 구소동

## 맞춤형 사업 발굴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요즘 기업에서 장애인을 적극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 다행으로 여긴다. 장애라고 해서 일을 못할 거라는 견해를 버린다면 그분들도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종을 찾아 더 많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전과 달리 나름대

로 마인드가 많이 열려져 가고 있고, 공공기관과 중소·대기업 할 것 없이 장애인 복지와 일자리 정책에 대해 선진국 형식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계제에 인도 룸바이의 작은 택배 기업 '미리를 쿠리어즈'라는 회사에 대해 잠깐

인도에서 잘나가는 택배기업으로 성장했다.

더 놀라운 일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채용하기로 하고 그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찾았다는 사실이다.

장애인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한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해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임광복·광주시 남구 구소동

인도에서 잘나가는 택배기업으로 성장했다.

더 놀라운 일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채용하기로 하고 그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찾았다는 사실이다.

장애인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한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해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임광복·광주시 남구 구소동

인도에서 잘나가는 택배기업으로 성장했다.

더 놀라운 일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채용하기로 하고 그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찾았다는 사실이다.

장애인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한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해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임광복·광주시 남구 구소동

인도에서 잘나가는 택배기업으로 성장했다.

더 놀라운 일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채용하기로 하고 그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찾았다는 사실이다.

장애인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한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해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임광복·광주시 남구 구소동

인도에서 잘나가는 택배기업으로 성장했다.

더 놀라운 일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채용하기로 하고 그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찾았다는 사실이다.

장애인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한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해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임광복·광주시 남구 구소동

인도에서 잘나가는 택배기업으로 성장했다.

더 놀라운 일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채용하기로 하고 그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찾았다는 사실이다.

장애인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한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해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임광복·광주시 남구 구소동

인도에서 잘나가는 택배기업으로 성장했다.

더 놀라운 일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채용하기로 하고 그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찾았다는 사실이다.

장애인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한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해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마인드가 필요하다.